

#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여성적 섹슈얼리티 -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플랫폼과 장르 -

한유희\*

## 국문초록

웹소설의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웹소설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체와 속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웹소설 성격의 기원을 대중소설로 보고 읽히는 방식이 변화한, 매체 전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로맨스 웹소설은 결국 로맨스 장르가 웹소설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장르적 속성을 더하고 있다. 로맨스 웹소설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때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에서 나타나는 섹슈얼리티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성격을 대중소설로부터 이어받고 있으며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과 잡지연재 소설 속의 섹슈얼리티는 지속적으로 한국 문단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60년대 여대생 소설에서는 여성이 직접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로맨스 웹소설과 비슷한 섹슈얼리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문연재를 진행한 박경리, 강신재와 같은 작가 또한 섹슈얼리티를 그리고 있으나 시간이 짧고 인기에 비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행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 통속적인 성격이지만 대중적 인기를 지니고 있는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은 또한 섹슈얼리티의 화자가 여성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이 직접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여성적 섹슈얼리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웹소설, 로맨스, 대중소설, 로맨스 웹소설, 장르, 매체, 섹슈얼리티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ABD of KyungHee University)

접수일(2019년 3월 30일), 수정일(2019년 4월 14일), 게재 확정일(2019년 4월 15일)

## I. 서론

웹소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다. 매년 시장이 성장<sup>1)</sup>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최근 웹소설에 관한 연구<sup>2)</sup>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웹소설이라는 명칭 또한 학계에서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다. 또한 웹소설의 장르적 성격도 여전히 논쟁중인 상태다. 이때 장르는 웹소설 자체가 되기도 하고 웹소설의 성격을 말해주기도 한다. 웹소설을 플랫폼으로 보는 매체론적 입장<sup>3)</sup>과 웹소설을 하나의 장르<sup>4)</sup>로 보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학술적으로 크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웹소설이 플랫폼에 장르가 나뉘어 연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판타지, 무협,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미스터리, BL/GL로 범주화된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점은 웹소설 자체의 속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웹소설은 노희준<sup>5)</sup>의 논의처럼 시장적이고 경험적

1)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2014년’ 199.4억 원, ‘2015년’ 567.4억 원, ‘2016년’ 991.1억 원으로 연평균 129.6%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플랫폼사가 매출의 요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조사 참여를 거절한 경우도 있기에 조사총액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16년 웹소설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1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2016년보다 50%성장한 약 2,700억 원으로 예측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IP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 2018, 129쪽 참조.)

2) 웹소설에 관한 주된 논의는 장르에 관한 논의, 창작 방법에 관한 논의, 매체론에 대한 논의로 이뤄지고 있다.

3) 이용희는 장르에 대한 더욱 폭넓은 논의를 한다. 노희준은 웹소설을 매체적 속성과 장르적 속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나 기본적 입장은 매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텍스트릿(<http://textreet.net/>)과 노희준의 논문을 살펴볼 수 있다.

4) 김봉석은 웹소설을 대중적인 장르소설로 일컫는다. 절대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독자는 만족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취향을 반복하기 때문에 독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사한 소재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봉석·강상준, 『웹소설 작가 입문』, 북바이북, 2017, 18쪽 참조)

5) 노희준, 「플랫폼 기반 웹 소설의 장르성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64권, 세계문화비

인 측면이 있기에 성격과 명칭을 확정하기 쉽지 않다. 웹소설이라는 명칭은 웹 공간에 소설을 연재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웹툰이 웹에 올린 만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웹소설은 사이버 소설, 인터넷 소설이라는 용어를 평정하고 웹에 올린 소설을 통칭하는 용어이자 개념이 된다.<sup>6)</sup>

웹소설은 우선적으로 대중문학<sup>7)</sup>의 성격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웹소설이 신문연재 소설의 대중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sup>8)</sup>이다. 신문연재 소설을 흔히 대중소설이라고 일컫을 수 있고, 신문에서 웹으로 매체가 이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웹소설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웹소설은 콘텐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한정지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매체 이전 대중소설적 성격을 설정할 수 있다.

웹소설의 하부 장르 중 로맨스 웹소설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대중적인 속성을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로맨스 웹소설은 로맨스에 대한 논의와 웹소설로 이전되면서 어떤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로맨스 웹소설이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소설의 장르 중 로맨스 웹소설은 일차적으로 수요가 많다. 네이버의

교학회, 413쪽 참조.

- 6) 김경애, 『로맨스 웹소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15쪽.
- 7) 대중소설이라는 용어 또한 여러모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에 변별적 차이를 명확하지 않은 채 유사 의미로 각자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고 있다. 이때 대중소설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통속적’이고 ‘선정적’인 성격적 특질만을 주목하고자 한다. 동시에 신문연재소설과 웹소설이 플랫폼과 성격적 특질이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대중소설의 범주는 신문연재소설의 대중소설로 한정한다.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는 홍선암, 「대중소설의 특성과 독자의 취향」, 『한민족문화연구』 6권, 한민족문화학회, 2000. 오혜진, 「대중소설론의 변천과 의의 연구」, 『우리문학연구』 22권, 우리문화회, 2007 등이 있다.)
- 8) 한혜원, 김유나, 「한국 웹소설의 멀티모드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1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5에서 신문연재소설과의 연계점을 연재의 기법 및 분량 등을 고려하여, 연재소설의 방식과 유사하다 밝히고 있다.

‘오늘의 웹소설’을 예로 들면 현재 89편이 연재<sup>9)</sup>중인데 세부장르를 살펴 보면 로맨스는 50편, 로맨스 판타지 24편, 판타지 9편, 무협 10편, 미스터리 4편, 역사·전쟁 1편, 라이트 노벨 1편 이 연재중이다. 로맨스 판타지 또한 로맨스가 기본적인 구조로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로맨스 장르에 포진된 것이 74편에 해당한다.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웹소설의 주력 장르이며,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가 주로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맨스 웹소설 열풍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웹소설은 네이버의 웹소설과 카카오페이지, 북팔, 문피아, 조아라, 미소설, 로망띠끄 등 여러 사이트에서 연재되고 있다. 각각의 사이트들은 주력 장르가 존재한다. 초기 웹소설 플랫폼들이 무료로 자신의 작품들을 게재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웹소설의 플랫폼들은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플랫폼들은 수익을 위한 자신만의 특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웹소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기업들의 독점구조<sup>10)</sup>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인 것이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인용 웹소설이다. 현재 가장 큰 업체인 네이버 웹소설과 카카오 스토리는 사이트 특성상 전연령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웹소설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맨스 장르가 성인용 콘텐츠에서 약진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 2012년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전세계적 현상이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인기는 전자책으로 출간된 점이 이점이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웹소설로서의 성인용 로맨

9) <https://novel.naver.com/webnovel/weekday.nhn>, 2019년 3월 28일 검색 기준.

10)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글.

스 콘텐츠는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북팔의 작품을 실례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북팔은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후발 주자지만,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이 지속적으로 연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맨스 웹소설은 창작 주체와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로맨스 웹소설의 장르와 성격, 층위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콘텐츠에 대한 논의 또한 드물다. 따라서 로맨스 웹소설의 기원적 특성을 밝히고, 로맨스 장르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떤 식으로 변모되어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에서 표현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표현이 여성의 욕망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며, 시장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 II. 본 문

### 1. 로맨스 웹소설의 기원과 특징

로맨스 웹소설을 분석하려면 우선적으로 ‘로맨스’라는 장르에 관한 정의와 ‘웹소설’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의미의 한정이가 필요하다. 로맨스는 우선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로맨스 서사는 인류의 모든 예술양식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사<sup>11)</sup>이나 ‘장애가 많은 연애 이야기’<sup>12)</sup>으로 사랑의 확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기본적 틀을 지니고 있다. 로맨스가 장르문학으로 속성을 한정지을 때에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주요 플롯을 이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된다는 로맨스<sup>13)</sup>가 된

11) 이주라, 진산, 『웹소설 작가 입문-로맨스』, 북바이북, 2016, 15쪽. 이주라가 논의했듯 로맨스는 멜로드라마부터 논의하는 것이 옳지만, 대중소설 속의 로맨스를 다루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로맨스는 협의의 개념으로만 차용하도록 한다.

12)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07, 13쪽.

다. 이때 로맨스의 공식(formulars)은 혼사장애, 신분의 차이, 삼각관계 등 문화권과 상관없이 통용되는 글로벌 공식과, 고부갈등, 사막의 이방인 등 해당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공식의 결합으로 구성<sup>14)</sup>되어 로맨스의 공식을 설정한다.

대중문학연구회에서는 로맨스 소설의 명칭을 연애 소설로 명명하는데, 이때 필요충분조건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남녀간의 사랑이야기의 핵심이자 소설 전개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연애소설에서는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나 인물들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 이때 방해 요소는 인격적 요소, 비인격적 요소 모두를 포함한다. 셋째, 사랑의 목표나 지향점. 연애의 과정이 행동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며 목표가 인간간의 싶은 이해나 화합에 있어야 한다. 넷째, 사랑에 관한 작가의 생각이 분명하고 진지하게 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15)</sup>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로맨스물의 시작은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주중환의 『장한몽』과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30년대에는 김말봉의 『절레꽃』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의 로맨스 장르와는 달리 신파적인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신데렐라 스토리, 삼각관계 등 로맨스의 기본 법칙은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60년대에는 하이틴인 소녀들의 불안과 방향을 성의 문제로 이해하고 풀어내는 독특한 서사 문법이 형성되는데 이때 박계영과 같은 ‘여대생 작가’들이 문단에 등장한다. ‘여대생 작가’군은 소녀 취향의 소설을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였는데, 사랑과 연애, 성과 결혼에 대해서 젊은 여성이 직접 발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16)</sup> 60년대의 『명랑』과 같은

13) 이주라, 진산, 앞의 책, 47쪽.

14) 한혜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성의 창작」, 『인간연구』 제34호, 인간학연구소, 2017, 48쪽.

15) 대중문학학회, 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1998, 13-24쪽 참조.

잡지를 통해 형성된 성과 사랑에 대한 담론들을 학습하면서 로맨스 장르는 취향과 장르가 굳건해질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연애물<sup>17)</sup>에서는 청년의 사랑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모습을 보인다. 일련의 ‘연애 소설’들은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창작된 한국적 연애담, 즉 로맨스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끌어 독자층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80년대부터 로맨스 장르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할리퀸 시리즈가 번역되어 나온 것이다. 이때의 할리퀸 시리즈는 로맨스의 공식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장애를 극복하고, 보상을 얻는 장르적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 작품들은 동시에 여성의 판타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장르문학으로서의 로맨스는 1979년 삼중당에서 ‘하이틴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할리퀸 시리즈를 내놓은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로맨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sup>18)</sup> 이후 신영 미디어에서 할리퀸 시리즈<sup>19)</sup>로 2019년 현재까지도 로맨스물을 출판하고 있다. 로맨스 소

16) 이주라, 진산, 앞의 책 참조.

여대생 소설과 로맨스 웹소설의 연관성은 여러 가지에서 관측된다. 우선적으로 신춘문예로 등단하지 않고 작품을 냈으며, 여성의 삶과 사랑에 관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인쇄매체인 책으로 바로 출간되는 여대생 작가들과 현재 로맨스 웹소설이 출간되거나 연재되는 상황을 비교하면 매체의 차이가 있을 뿐 방법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여대생 작가들이 여러 잡지에 글을 연재하거나, 팬덤을 이룬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

17)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과 같은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18) 삼월토끼, ‘로맨스의 역사: 국내 할리퀸 번역사’. (출처: Romancia, [http://www.romancian.com/index.php?mid=news003&page=3&document\\_srl=7971](http://www.romancian.com/index.php?mid=news003&page=3&document_srl=7971))

19) 할리퀸 엔터프라이즈는 캐나다의 젊은 출판업자 리처드 보니캐슬이 1949년 창립하였으며 세계의 많은 여성들에게 읽히는 신선한 감각의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할리퀸 엔터프라이즈는 창립 초기에 영국의 출판사 밀 앤 분(Mill & Boon)사에서 로맨스 소설의 판권을 사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밀 앤 분(Mill & Boon)사의 북미 출판권을 획득하여 1964년 에 로맨스 소설 전문 출판사로서 거듭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여성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설의 도입으로 사랑과 연애, 결혼과 성에 대한 여성들만의 상상을 펼치고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로맨스 장르의 시장이 확보<sup>20)</sup>되었다. 이후 종이책 시장이 불황을 맞으며 로맨스 소설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 소설’이 부상하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로맨스 장르가 부활한다. 로망띠끄, 조아라와 같은 사이트들을 주축으로 하여 연재를 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전자책 콘텐츠가 활성화된다. 오히려 전자책으로 넘어오면서 로맨스 소설은 오히려 여러 시도가 이뤄진다. 전자책 특유의 은폐성은 취향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으로 출간되는 로맨스 소설의 성적 묘사의 검열이 느슨해졌다.

태생적으로도 대중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웹소설은 대중예술적 요소를 띤다. 대중예술은 본질적으로 인식보다는 감정·정서가 중심이 되고, 작품 수용 과정 자체의 즐거움이 중시되며, 세상에 대한 환기가 각성보다는 해소<sup>21)</sup>가 우선적인 부분을 점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중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예술을 대중의 욕망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웹소설은 그런 대중적 매체와 대중적 성

---

그 후 1969년에 본사를 토론토로 옮긴 할리퀸 엔터프라이즈는 참신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로맨스 애호가를 탄생시켰고 로맨스 장르는 대중문학으로 성공을 거두어 오늘날 전세계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작가는 총 1,500명으로, 라벨 스펜서, 제인 앤 크렌츠, 산드라 브라운 등 뉴욕 타임즈,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할리퀸 문고를 시작으로 작가로서 첫발을 내딛었으며 항상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편집의 저작물을 꾸준히 기획 출간하고 있습니다.

‘할리퀸’은 50년 동안 변화 발전하면서 거듭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과거 여주인공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 맞추어 복종하는 삶을 택하고 틀에 짜인 전형적 구도에 따르는 즐거이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가족 간의 화합, 결혼가정의 사랑과 회복, 커리어 우먼의 사랑 등 적극적인 삶을 꿈꾸는 여성들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주체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출처 : 신영미디어 할리퀸의 역사 <http://www.sybook.co.kr/syEtc/company.asp?vacate=0>)

20) 이주라, 진산, 앞의 책, 77쪽.

21)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 푸른역사, 2016 참조.



격으로 인해서 ‘스넥 컬처’로 분류되는 것이다.

스넥컬처로 분류되는 웹소설에 로맨스 장르가 더해지면서 웹소설이라는 매체 특성상 로맨스 장르의 창작법<sup>22)</sup>이 달라진다. 로맨스 장르에서 사건들이 복잡한 부분들은 웹소설로 옮겨오면서 단순화되고, 등장인물 또한 오히려 성격이 더욱 명확해지게 된다. ‘핵심 이야기(story core)’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지는 것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핵심 이야기가 간단한 상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마리 로러 라이언<sup>23)</sup>의 논의는 웹소설에서도 통용된다. 웹소설로 존재하는 로맨스의 장르는 결국 웹소설의 특성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은 로맨스의 일반적인 웹소설의 창작원리보다 더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장르 안에 하부장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웹소설 창작에 있어서 ‘장면의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창작하며, 서술보다는 대화를 많이 넣고, 묘사를 줄인다는 작가들의 창작방식<sup>24)</sup>은 웹소설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쓰인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에서는 성애 장면의 묘사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긴 글의 흐름의 구조 속에서 많은 장면을 할당해야한다는 점이 관건이 된다.

## 2. 대중소설 속 섹슈얼리티와 로맨스 장르 속 섹슈얼리티

대중소설은 선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30년 중반부터 신문연재소설의 통속문화적 성격이 강해지는데 『자유부인』 이후 선정성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동아·조선·서울신문 등 3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신문연재소설 31편 중 70%에 해당하는 21편이 간음과 성행위를 다룬 소설<sup>25)</sup>이었다. 이런 현상은 잡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명랑』과 『아리랑』

22) 「이미 거인된 ‘웹툰’ 따라 쑥쑥 크는 ‘웹소설」, 『매일경제』, 2016년 12월 7일자.

23) 마리 로어 라이언, 조애리, 이봉지 역, 『스토리텔링의 이론, 영화와 디지털을 만나다』, 한울아카데미, 2014, 343쪽.

24) 박수정, 유오디아 외 4인, 『도전! 웹소설 쓰기』, 폭스코너, 2016, 22쪽 참조.

등 대중잡지에서 십대의 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때 십대는 성인들의 성적 대상이자 동시에 그들 스스로 자유로운 성 문화를 즐기는 성적 주체의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이런 모습은 ‘하이틴 소설’의 주된 성격이다. 이때의 섹슈얼리티<sup>26)</sup>는 남성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전유된 모습이다.

중요한 지점은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은 ‘여성’이 창작하고, ‘여성’이 소비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여성의 성적 판타지 혹은 성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딱지본 소설부터 이어지는 대중소설의 성격에서도 선정성은 지속적인 소재였다. 1960년대에는 소위 ‘여대생 소설’로 대표되는 작품들이 선정성 논란<sup>27)</sup>을 빚었다. ‘여대생 소설’은 웹소설과 플랫폼은 다르지만, 등단하지 않은 여성 작가들이 성적 판타지 혹은 개방적 성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후 여성 작가들<sup>28)</sup>의 글쓰기는 잡지, 신문연재소설에서도 지속적으

25) 박철우, 「신문연재소설 100년, 그 의미와 과제」, 『한국문예창작』 제1권 제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 138-140쪽 참조.

26) 신문연재소설에서의 1950년대에 ‘아프레걸’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 또한 남성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과 이후 ‘하이틴 소설’에서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형상화한다. 이후 70년대에서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응징되어야 하고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며 선정성은 여성의 성적 타락으로 비취질 뿐이다.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 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우리문화』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참조.

27)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우리문화』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8) 특히 여대생 소설은 판매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적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희숙, 박계형, 신희수와 같은 작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강신재, 박경리와 같은 유명한 작가였으나 신문연재를 진행했던 대중소설 또한 많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중서사라는 장르로 2000년대 들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허윤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허윤은 195,60년대 나타난 여대생 소설은 여성 취향이라는 취향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낭만적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교본으로 자리매김한다. 1960년대 ‘여대생 작가’와 더불어 주목받았던 10대 여학생 작가 등은 여성향 서브컬처의 원류를 보여준다. 보고는 이러한 ‘여대생’ 소설을 대중 서사가 만들어낸 판타지

로 이루어지는데, 통속적이라는 평가로 인해 문학사적 의의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였다.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sup>29)</sup>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연재와 잡지연재의 소설은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방향성과는 어느 정도 일치<sup>30)</sup>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대중문학 자체가 비평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쉽지 않았기에 이러한 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 따라서 선정성, 통속성이라는 성격의 대중문화의 하위 문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소설 자체에 대한 의제 자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연애소설, 로맨스 장르는 비주류의 문화 저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문화 속 로맨스는 끊임없이 대중들의 인기를 받았다. 로맨스라는 장르는 장르소설의 성격이 있기 때

의 일종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학생 문학과 ‘여대생 작가’를 거쳐 여성들은 1970년대 후반 할리퀀로맨스의 번역본인 ‘하이틴 로맨스’와 만난다. 삼중당에서 번역한 ‘하이틴 로맨스’는 1990년대까지 한국 여학생들에게 낭만적 사랑과 성적 쾌락을 알려주었다. 이는 비밀스러운 소녀들의 즐거움으로 남아 감상적인 여성 독자상을 전유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계보를 소설, 만화, 영화 등을 포함한 대중서사 장르에서 계보화하려는 시도이다. -허윤, 「‘여대생’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절대화 : 최희숙, 박계형, 신희수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0권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8, 193쪽.

- 29)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섹슈얼리티는 엄밀하게 볼 때 성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른 사회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성별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규범, 제도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정체성은 주체의 맥락적 위치에 따라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 게이/레즈비언과 같은 성적 범주의 경계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성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성을 사회적으로 좋은 성/나쁜 성, 정상적인 성/비정상적인 성, 자연적인 성/ 일탈적인 성으로 위계화하는 데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심진경, 『한국 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33쪽. 이때의 섹슈얼리티는 푸코의 논의를 따른다.
- 30) 이와 관해서는 좀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외에도 로맨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방향성이 같다고 표현하였다.

문에 구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대중들은 이미 자신들이 체험한 것들<sup>31)</sup>에 대해 욕망을 표출한다. 학계와는 달리 문화 속 로맨스 장르를 경험한 수용자들은 로맨스 장르를 쉽게 수용하였다.

로맨스 소설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사랑의 행복한 결말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애장면은 사랑의 행복한 결말 및 고난의 해결과정에 있어 위기를 넘어서는 클리셰처럼 쓰인다. 로맨스 소설에서 성관계에 대한 묘사는 ‘영원한 해피엔드’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sup>32)</sup> 이때 사랑에 대한 장면을 섹슈얼리티하게 표현하며 창작자와 독자 모두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런 점으로 인해 로맨스는 여성의 포르노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오래된 논의지만 재니스 래드웨이가 연애소설 장르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부분적으로 ‘책의 제작과 배포, 광고와 판매기술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는<sup>33)</sup> 논의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웹소설로 넘어온 로맨스 장르는 은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대한 노출이 적기에, 작가와 독자 모두 욕망을 강도 높게 표출할 수 있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풀리기 힘든 주제이자 가장 매력적인 주제인 성관계의 문제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로맨스 장르<sup>34)</sup>가 펼쳐진 것이다.

성은 내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텍스트로 이루어진 섹스 장면은 관음증적 시선을 유지할 수 있다. 애초에 남의 성관계를 엿보는 것 자체가 금기다. 금기를 어기고 완벽하게 그들의 섹스 장면으로 들어가 관계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생각, 느낌 모두를 포괄한 섹스를 대리체험하는 것은 쾌락의 큰 요소가 된다. 또한 섹스가 이야기로 존재할 때 더 자극적인 것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이다. 영상은 시각과 청각 모두를 직

31) 최미진, 『한국 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푸른사상, 2006, 320쪽.

32) 오기 오가스, 사이 가담, 왕수민 역,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웅진지식하우스, 2011, 231쪽.

33) 존 스토리, 박만준 역,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경문사, 2017, 264쪽.

34) 이주라, 진산, 앞의 책 79쪽.

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웹소설 속 성관계 장면은 철저하게 텍스트로만 존재하기에 작가와 독자 모두 텍스트를 이미지화하고, 청각화한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만의 판타지가 덧입혀진다. 섹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각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성 작가들은 여성의 욕망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하며 웹소설을 진행시킨다. BL이라는 장르와 성적인 묘사가 다분한 성인 로맨스 장르도 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묘사하는 이런 글쓰기는 욕망과 자극을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행위다. 성의 상품화라는 말로 불리는 포르노적 이미지들이 남성의 억압을 달래주는 것이라면, 문화적 이유로 한 단계 더 보수적이어야 하는 여성들의 억압을 달래주는 멜로드라마의 상상적 일탈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웹소설에서 성인 로맨스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상업적인 성격과 여성들의 성적 표현<sup>36)</sup>에서 발로한다.

성인용 로맨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대중문학, 게다가 장르문학의 한계라는 점도 있었지만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동시에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전부터 있어왔던 팬픽, BL과 같은 비주류 및 성적 묘사가 강렬한 작품들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스토리를 공유<sup>37)</sup>했으나, 2013년 이후 한국에서도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여성 네임드 작가들이 개방형 사이트에서도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웹소설 플랫폼이 시장에서 필요했던 ‘특수한’ 장르를 원하는

35) 윤진, 『호모 드라마쿠스』, 살림, 2008, 82쪽.

36) 육체의 쾌락은 사랑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집착시켜 주지만 육체의 쾌락만으로는 사랑이 태어나지 않는다며 여성에게는 쾌감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이인, 『성에 대한 알지 않은 지식』, 을유문화사, 2017, 53쪽.

37) 한혜원, 정은혜, 「한국 웹 기반 여성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14, 2016, 81~105쪽 참조.

이해관계가 부합되었다. 성인용 로맨스와 BL과 같은 장르가 웹소설 플랫폼의 전반에 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만 향유하던 은밀한 취향으로서의 로맨스가 아닌 보편적인 대중문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로맨스 웹소설<sup>38)</sup>의 성격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물론 완전한 양지라고 단언하기엔 무리가 있다. 여전히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 시장의 작가와 독자는 익명성에 가려져 있으며 인기요인 중 하나가 취향의 은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쇄적 사이트에 머물던 작품들이 공개적인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섹슈얼리티가 여성에 의해서 직접 묘사되고, 소비하는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 3.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가능성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기 쉽지 않다. 이는 전세계에 해당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성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분명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이 성적 욕망을 발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다르다. 익명성에 기초해 성에 대해서 여러모로 발화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로맨스 웹소설에서 잘 드러난다. 로맨스 웹소설을 주 장르로 택한 로망픽크, 조아라, 북팔 등의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소설들은 19세 관람 불가가 대부분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로맨스 장르까지 더해지면서 이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때의 로맨스 웹소설은 웹소설이라는 플랫폼에 장르소설이 연재되었다는 점을 위시한다. 물론 문피아와 같은 다른 사이트에도 로맨스 장르가 포진되어 있으나, 표현 방식과 소재<sup>39)</sup>가 조금 다르다.

38) 한혜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성의 창작-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인간 연구』 34,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7, 47쪽.

39)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여성향 성인용 로맨스와 달리 남성향 성인용 로맨스는 더 선정적이고, 소재 자체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강하

로맨스 웹소설에서 섹슈얼리티가 부각되는 것은 여성들이 직접 여성들의 욕망을 발산 및 해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웹소설의 플랫폼 특성상 공급과 소비가 매우 쉬워졌다. 동시에 개인의 독서 성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 웹소설은 모바일 환경에서 특화되어 있다. 웹소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소설과는 또 다른 확연히 ‘개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금기시되던 성적 욕망을 발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제공된다.

소위 ‘야한’ 로맨스 소설에 대한 여성들의 소비와 관심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발맞추어 로맨스 소설에서는 애정 행위에 관한 묘사가 주가 되는 소설들이 많아지고 있다. 웹소설 이전의 전자책에서 성인용 로맨스 소설은 약진하고 있었다. 주로 전자책 전용 레이블<sup>40)</sup>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었다. 웹소설로 연재가 되면서 성적 묘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연재 특성상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며 욕망을 노출하고 즉각적으로 반영가능하기 때문이다.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호기심에 무료 연재분을 보고 이후 선택적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로맨스 웹소설을 기조로 하는 북팔, 로망띠끄와 같은 사이트는 청소년 관람불가 작품이 사이트 메인에 위치한다. 북팔은 로맨스 장르의 하위 구분이 소프트로맨스, 고수위로맨스, 로판으로 구성된다. 소프트로맨스, 고수위로맨스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랭킹에 오른 소설들은 대부분 19세미만 관람불가 작품이다.<sup>41)</sup> 성인용 로맨스라는 장르가 음지에서 양지의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로맨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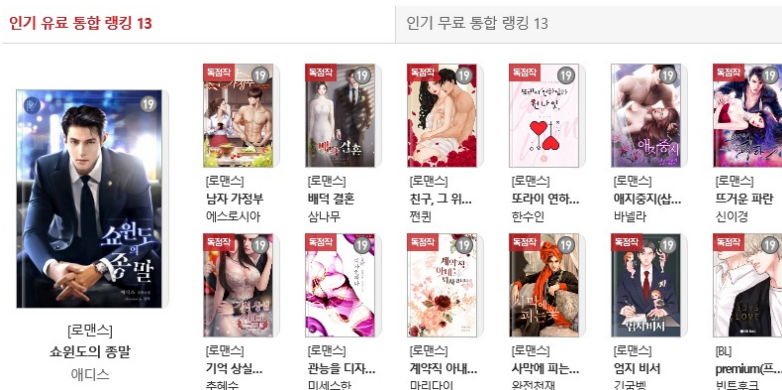
다. 이에 관해서 최배은은 사이트 별로 같은 로맨스더라도 이용하는 독자의 성별에 따라 서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19금 작품이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소녀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낭만적인 로맨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23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7, 77쪽.

40) 우신출판사의 루비레드, 신영미디어의 녹스와 같이 출판사에서 레이블을 마련하여 시리즈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41) 현재 북팔 로맨스 장르 랭킹 30위까지의 작품은 모두 성인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90일내에 연재된 모든 챕터의 판매 수를 집계한 것이다. 검색날짜 : 2013.04.13. (북팔, <http://www.bookpal.co.kr>)

웹소설을 주로 하는 로망띠끄와 피우리넷도 마찬가지다.

웹소설 연재 사이트 중 성인 로맨스 시장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북팔을 들 수 있다. 보통 성인 로맨스 소설이 전자책 시장을 중심으로 커져있는데 반해 북팔은 꾸준히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연재처로 큰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 북팔에서 ‘완전천재’는 지속적으로 연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료 연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심작품으로 등록되었고 리뷰가 많은 작가 중 하나다.



〈그림 1〉 북팔 유료 베스트 목록

출처 : 북팔, <http://www.bookpal.co.kr>

완전천재는 북팔에서 총 37작품<sup>42)</sup>을 연재했다. 이중 가장 최근에 연재되었고, 관심작품과 조회수가 많은 두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관심작

42) 사막에서 피는 꽃(2019), 그 남자의 사랑법(2019), 36.5℃(2018), Hello(2018), 女子(2018), 방, 있어요?(BL)(2018), 울프(2018), Destiny(2017), 힘내요, 영숙 씨(2017), 소유, 하자!(BL)(2017), 도둑(2017), 영원(2017), 꽃이 핀다(2017), Loving you(2017), 정엽(2017), 블랙(2016), 하극상(2016), 야수의 인장(2016), 수컷(2016), 플라워(2016), 광애(2016), 사랑이란(BL)(2016), 물의 여신(2016), 첫사랑(2015), 로열 스트레이트 플래쉬(2015), 질주(2015), 범생이 길들이기(2015), 보스의 여자(2015), Again(2015), 크리스마스엔 사랑을(2015), 영혼의 무게(2015), 영당이 만지는 여자(2015), 품생품사(2015), 밀회(2015), 낙엽(2015), 개와 고양이(2015), 휘의 이야기(2015). 이중 사막에 피는 꽃(2019)의 관심작품수는 17,869, 조회수는 1,083,073이며, 36.5℃(2018) 관심작품수 6,702, 조회수 814,032로 북팔에서 인기작에 속한다.



품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작품 중 정식 연재로 무료 연재되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막에 피는 꽃’과 ‘36.5℃’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작품 모두 로맨스의 기본 공식을 따르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혼사 장애와 관련한 부분을 지니고 있으며, 대중소설 중 통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같은 상처를 받은 남녀가 사건의 중심에서 ‘강한 이끌림’에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며 사랑을 느끼고,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기본적인 플롯을 따른다. 두 작품 모두 삼각관계에 해당하는 장애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랑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랍의 가상적 나라와, 재벌가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환경을 소설의 기본적 배경이 된다. 동시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대 혹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남성 주인공, 여성 주인공 모두 외면적으로 매력적이며 성적 매력이 가득하다는 것 또한 동일하다.

작품 중 성애장면이 포함된 회차는 총 회차의 3분의 1을 차지<sup>43)</sup>하고 있다. 로맨스 소설 특성상 섹슈얼리티를 묘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건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거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과업과 같은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통속적인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100회에 가까운 이야기를 끌여가기 위해서는 긴장과 이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요소는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풀리기 힘든 주제이자 가장 매력적인 주제인 성관계의 문제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로맨스 장르<sup>44)</sup>가 펼쳐질 수 있다. 이때 ‘여성향’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과 우리가 흔히 일컫는 에로 웹소설과의 차이점이 중요하다. 여성이 주로 쓰고 여성이 주로 읽는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은 섹스만이 중요하지 않다. 또한 여성들의 성적인 환상이 남성들의 환상에 비해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sup>45)</sup>

43) 성애 장면이 묘사되는 회차는 다음과 같다. ‘사막에 피는 꽃’은 외전 포함 119회차 중 26회, ‘36.5℃’는 외전 포함 125화 중 43회에 해당한다.

44) 이주라, 진산, 앞의 책 79쪽.

따라서 로맨스 플롯은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성적 요소들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대중예술에서 바라는 것은 욕구 욕망의 충족 상태를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영미의 논의를 확장시켜 로맨스 웹소설을 조망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대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클리셰와 같은 장르적 특성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소망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수위가 높은 선정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성적 발화, 욕구 충족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면서 이를 보는 여성 독자들을 충족시킨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은 오히려 작가들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댓글로 투사하기도 한다.

완전천재는 작가로서 어떤 식으로 섹슈얼리티를 표현할지 작가의 말로 직접 공지한다. 선정적인 장면을 묘사할 때의 고민을 털어놓고 본인의 작품 속에서 성애 장면은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독자들 또한 댓글을 통해 본인의 성적 욕망 혹은 감상을 쉽게 적고 의견을 나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독자들이 단순히 19금이라고 표현되는 섹슈얼리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하게 복수하고 맘 편히 행복하게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과 같이 이야기 전반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야기 전반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섹슈얼리티한 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sup>46)</sup>으로 존재한다. 동시에 흥미 있는 사건과 자극적인 섹슈얼리티 묘사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을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45) 오기 오가스, 앞의 책, 148~9쪽.

46) 이는 최인호가 신문연재소설에 관한 작품관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인다. 최인호는 “질질 끌어 나가는 것, 섹스묘사, 우연성을 자주 집어넣는 것 등은 오히려 독자들로부터 경원당할 위험마저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轉換期에 선 新聞連載小説」, 『신문과 방송』, 1979년 2월, 오혜진, 앞의 논문, 314-315쪽 재인용.

<p><b>원전천재</b> 2018.09.07</p> <p>38 회 <b>싱구개의 마에스트로?</b></p> <p>흠흠</p> <p>갑나 부끄한 칭찬이서라 호호호---</p> <p>음...</p> <p>참엔 싱구를 쓰면서도 어디 내놓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여</p> <p>아들 친구 엄마들이 알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보면? 요런 고민이 틀다이다</p> <p>신을 순하게 쓰고 싶어도 잘 안 돼요 ㅎㅎ 남여가 발가벗고 그거 하는데 완전베고 가면쓰면 그게 좋은건가 싶어서 ㅎㅎㅎ</p> <p>어차피 로설 대리만족으로나 화끈하게 쓰자.</p> <p>몸만의 대화라면 야살이고 감정이 것들면 예술이지 않은가 (글타고 재가 쓰는 게 예술은 절대 아님! ㄷ!)</p> <p>지금은 씬이 재 특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만이 쓸 수 있는 난잡하고 야한 고풍격 썬.</p> <p>지금은 부끄럽지 않아요</p> <p>그리고 내 남들이 있어 든든합니다</p> <p>이상 천재의 고백 타임이었습다 구백 (후다닥 도망감)</p> <p>👍:50</p>	<p><b>김유</b> 2018.09.08</p> <p>38 회 <b>몰입도가 급 상승중입니다---</b> 아니 못하는게 할까요? 저도 제대로 저런 뜨거움에 불살라지도록 죽어봤을 줄겠네요--- 아유--- 부러워라!!!! 답 생애나 가능할런지. 에잇!</p> <p>👍:0</p> <p><b>사랑먹은낙랑</b> 2018.09.08</p> <p>38 회 <b>대단한 녀석일세 타고났네 아주그냥 죽어줘요~</b></p> <p>👍:0</p> <p><b>천사금정</b> 2018.09.08</p> <p>38 회 <b>사마의 야살...다시보기 무한반복 주말이참인디요...</b> 아름 엄청바쁘네요.</p> <p>👍:0</p> <p><b>장미도둑</b> 2018.09.08</p> <p>38 회 <b>역시..역시..대단하심</b></p> <p>👍:0</p> <p><b>모모내하우스</b> 2018.09.08</p> <p>38 회 <b>완전 몰입 ㅎㅎ</b></p> <p>👍:0</p> <p><b>비니뽕</b> 2018.09.08</p> <p>38 회 <b>잘봤습니다</b></p> <p>👍:0</p> <p><b>go090909</b> 2018.09.08</p> <p>38 회 <b>부끄부끄ㅋㅋㅋㅋㅋ잘보고가용</b></p> <p>👍:0</p>
<p><b>햇살여인</b> 2018.06.16</p> <p>36 회 <b>이런 19는 처음이라 머리로 상상하느라고 좋았네요</b> ---특히 지금 새벽 1시30분---이제는 저고 낮에 시간날때 이어서 봐야겠어요---^^</p> <p>👍:0</p> <p><b>사과걸</b> 2018.06.14</p> <p>36 회 <b>동훈아..아..짜식..힘내.</b></p> <p>👍:0</p> <p><b>카라2011</b> 2018.06.06</p> <p>36 회 <b>잘읽었습니다 ~~~~</b></p> <p>👍:0</p> <p><b>이린은을</b> 2018.06.01</p> <p>36 회 <b>동훈이가 신하게 복수하고 믿음히 행복하게. 광범하게 시는 모습을 빨리 보고싶어요</b></p> <p>👍:0</p> <p><b>러블리본본</b> 2018.05.30</p> <p>36 회 <b>악작가님 장난 아니네요 **진심 아ھا쿠름내요</b></p> <p>👍:0</p> <p><b>ssum81</b> 2018.05.28</p> <p>36 회 <b>숨막히는 싱구였습다~</b></p> <p>👍:0</p> <p><b>나는나지요</b> 2018.05.28</p> <p>36 회 <b>아 싱구는 끝났나요??? 아쉽. ㅎㅎ</b></p> <p>👍:0</p>	

<그림 2> 원전천재 작가의 말, 독자 댓글  
출처 : 북팔, <http://www.bookpal.co.kr>

로맨스 소설을 생산, 소비하는 주체가 대체로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애 장면을 위시한 웹소설 작품들이 유행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웹소설로 시작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했던 것<sup>47)</sup>을 고려한다면 주목할 만하다. 전자책의 수혜라고 분석되었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시작도 『트와일라잇』의 팬픽션이 시초가 되었다는 점을 인지할 때, 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지 않던 한 ‘여성’이 작가로 부상하고 있고, 이 작가는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하게 하면서 상상력을 한껏 자극해 이야기의 전개를 자기 나름대로 그려보게 하고 주인공의 결정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게도 만든다. 에바 일루즈는 『사랑은 왜 불안한가』에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를 분석한다. 문학성으로는 조악한 수준이지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문화를 바라보는 여성적 시각의 궁극적 승리<sup>48)</sup>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장르소설이 웹소설로 옮겨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매체 환경 때문이다. 웹과 모바일이 주된 매체가 되면서 로맨스 소설도 당연히 로맨스 웹소설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웹소설로 넘어오면서 유료화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독자들의 지출이 생겨난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 플랫폼들이 로맨스 웹소설의 흐름을 잡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미리 보기를 제외한 웹소설은 모두 결제를 해야만 작품을 볼 수 있다. 문화를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 것이다.

성인용 웹소설은 웹소설 페이지의 수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sup>49)</sup> 중 하나다. 따라서 시장은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섹슈얼리티가 표상되는 작품을 작가에게 요구하며, 독자들을 유인한다. 수많은 플랫폼사들 중 살

47) 「'19금' 국내서 통할까... 영미권서 선풍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경향일보』, 2012년 8월 27일자.

48) 에바 일루즈, 김희상 역, 『사랑은 왜 불안한가?』, 돌베개, 2014, 12쪽.

49) 「카카오페이지, '19금' 없이 성장한 비결은」, 『뉴시스』, 2016년 12월 28일자.

아남기 위해서 택하는 방식인 것이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은 자칫하면 웹소설의 전반적인 질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소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섹슈얼리티의 표출의 창구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III. 결 론

본 글은 로맨스 웹소설의 기원과 특질을 살피고자했다. 우선 웹소설을 장르로 보지 않고 매체의 발전으로 생겨난 문학의 한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대중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따라 문화가 달라진다는 매체론적 입장에 기반하여 장르소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웹소설이 대중의 매체라는 점과 로맨스 장르 자체 또한 대중적 속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후 로맨스 장르가 어떤 식으로 한국의 대중소설 속 장르의 하나로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정성의 성격을 대중적 요소로부터 살펴보았다.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의 성격을 대중소설로부터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했다.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과 잡지연재 소설 속의 섹슈얼리티는 지속적으로 한국 문단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여성의 성적 욕망이 남성의 욕망으로 전유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후 60년대 여대생 소설에서는 여성이 직접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로맨스 웹소설과 비슷한 섹슈얼리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문연재를 진행한 박경리, 강신재와 같은 작가 또한 섹슈얼리티를 그리고 있으나 기간이 짧고 인기에 비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행에 그치고 말았다. 최근 대중서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이 당시의 작가들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섹슈얼리티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자체에 대

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현재 유행인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어려운 것은 너무 다층적인 의미를 한 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성에 해당하는 섹슈얼리티, 로맨스 장르, 웹소설이라는 경험적인 정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구조에서도 성인용 로맨스 웹소설은 의미가 상당하기에 논의가 필요하다. 웹소설 시장의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성인용 콘텐츠에서 발생<sup>50)</sup>하고 있다. 선정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소설적 요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적인 현상<sup>51)</sup>이다. 물론 웹소설 자체가 스낵컬처의 성격을 지니기 있기에 작품성과 모럴에 관해서 엄격한 규제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웹소설 업계 자체에서도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질적 하락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논의에서는 BL, 백합과 같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로맨스 장르와 로맨스 판타지의 성인용 로맨스 장르를 다루지 못했다.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섹슈얼리티를 발화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논의로 넘긴다.

---

50) 위의 글.

51) 포르노그래피나 도색소설이 문제시되는 것은, 거기에 표현된 성행위의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묘사를 통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나 인간관계의 단절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연구회,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20쪽.)

## 참고문헌

- 김경애, 『로맨스 웹소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김봉석·강상준, 『웹소설 작가 입문』, 북바이북, 2017.
-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 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우리문화』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 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학학회,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 노희준, 「플랫폼 기반 웹 소설의 장르성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64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07.
- 마리 로어 라이언, 조애리, 이봉지 역, 『스토리텔링의 이론, 영화와 디지털을 만나다』, 한울아카데미, 2014.
- 박수정, 유오디아 외 4인, 『도전! 웹소설 쓰기』, 폭스코너, 2016.
- 박철우, 「신문연재소설 100년, 그 의미와 과제」, 『한국문예창작』 제1권제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
- 심진경, 『한국 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 에바 일루즈, 김희상 역, 『사랑은 왜 불안한가?』, 들베게, 2014.
- 오기 오가스, 사이 가담, 왕수민 역,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웅진지식하우스, 2011.
- 오혜진, 「대중소설론의 변천과 의의 연구」, 『우리문학연구』22, 우리문학회, 2007.
- 윤진, 『호모 드라마쿠스』, 살림, 2008.
-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 푸른역사, 2016.
- 이인, 『성에 대한 알지 않은 지식』, 을유문화사, 2017.

- 이주라, 「음란 소녀 탄생기」, 『대중서사연구』 제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 이주라·진산, 『웹소설 작가 입문-로맨스』, 북바이북, 2016.
-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우리문화』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 존 스토리, 박만준 역,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경문사, 2017.
- 최미진, 『한국 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푸른사상, 2006.
- 최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23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IP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 2018.
- 한혜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성의 창작-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인간연구』34,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7.
- 한혜원, 김유나, 「한국 웹소설의 멀티모드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1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5.
- 한혜원·정은혜, 「한국 웹 기반 여성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14,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 허윤, 「‘여대생’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절대화 : 최희숙, 박계형, 신희수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0권, 역사문제연구소, 2018.

## 기사

- 「카카오페이지, ‘19금’ 없이 성장한 비결은」, 『뉴시스』, 2016년 12월 28일자.
- 「이미 거인된 ‘웹툰’ 따라 쑥쑥 크는 ‘웹소설」, 『매일경제』, 2016년 12월 07일자.
- 「‘19금’ 국내서 통할까… 영미권서 선풍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경향일보』, 2012년 8월 27일자.



## 웹페이지

네이버 웹소설, <https://novel.naver.com/webnovel/weekday.nhn>

로맨시안, [http://www.romancian.com/index.php?mid=news003&page=3&document\\_srl=7971](http://www.romancian.com/index.php?mid=news003&page=3&document_srl=7971)

북팔, <http://www.bookpal.co.kr>

텍스트릿, <http://textreet.net/>

〈ABSTRACT〉

## **Female Sexuality of Adult Romance Web Novels – Platforms and Genres that Reveal Women's Desires –**

Han, Yu Hee

The market for web novels is growing every year. Although there is constant discussion of web novels, there is no accurate definition of media and attributes. In this book, we want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web novel's character as a media transition, which has changed the way it is viewed and read as a popular novel. Romance Web novels are eventually adding genre attributes through a platform that the romance genre is a web novel. The market for romance web novels is growing. It should be noted that adult romance web novel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profits. To this end, we wanted to look at where the sexiness in adult romance web novels is coming from. It noted that the nature of romance web novels for adults is inherited from popular novels, and that the popularity of newspaper-released novels and the sexiness of magazine-released novels have been continuously revealed in Korean literary circles. Since then, the no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60s shows sexual desire of women, which is similar to the current romance web novel. Also, writers such as Park Kyung-ri and Kang Shin-jae, who conducted newspaper series, have also been in fashion because they are short-lived and lack of discussion over their popularity. This part of the project was to look at continuity, which is a common character but has a popular popularity. Adult romance web novels

should also note that the speaker of sexuality has become a woman. The woman is showing her own desires. Let's look at how the feminine sexuality of adult romance web novels is expressed.

Key Words : Web novels, romance, pop novels, romance web novels,  
genres, media, sexuality

